

자기자신을 되찾게 하는 영혼의 땅

티베트 여행



라싸 포탈라 궁.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던 티베트 불교의 성지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티베트로 가는 '하늘열차'

시닝을 출발한 열차가 핑음을 토해내며 티베트로 향했다. 해발 3,500m 전후의 칭하이 고원과 4,000~5,000m 높이의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시짱자치주의 주도이자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싸까지 1,972km를 달리는 칭짱열차다. 세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열차라고 해서 '하늘열차'라고도 불린다. 워낙 고도가 높은 곳을 달려 기차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산소 공급장치도 달려 있다.

기차는 시닝을 통과하자마자 황원협곡을 지나 칭하이 고원의 황량한 벌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멀리 만년설을 뒤집어쓴 영봉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광활한 광야가 펼쳐졌다. 시닝에서 한 시간 정도 달리자 칭하이호(青海湖)가 나타났다.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로, 해발 3,2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의 바다라는 의미로 서

해(西海)라고도 불린다. 바다와 같은 칭하이 호수 저편으로 해가 नी엿 नी엿 기울면서 고원에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했다. 탑승객들 모두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빼앗겼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아내는 “여기가 강추 1번이야, 1번!”이라며 기존의 강추 1번지가 항저우의 서호라는 입장을 바꾸었다. 항저우는 칭짱열차를 타보기 이전에 꿈은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변심(變心)을 탓할 수는 없다. 실제로 마음을 바꿀 만하다. 칭짱열차에서 바라본 고원의 석양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티베트 여행이 준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칠커덕칠커덕 밤새 달린 기차는 티베트 고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침 해가 뜨자 고원의 웅장한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죽기 전에 한번은 꼭 봐야 할 멋진 풍경이다. 기차가 지나는 곳은 해발 4,000m 이상,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척박한 풍경이 끝없이 이어졌다. 고산지대에서 사는 관목류와 이끼류, 그걸 뜯어먹고 자라는 양과 야크들만이 이따금 보일 뿐이다. 그렇게 24시간을 달려 드디어 라싸에 도착했다.

순례자가 넘치는 고원도시

라싸는 여행하기 힘든 오지 중의 오지다. 남쪽으로는 해발 8,000m를 오르내리는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고, 북쪽으로는 4,000~5,000m의 황량하고 거친 티베트 고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도 거칠고 황량하다. 하지만 거기엔 티베트인들이 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며 형성한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

우리 가족은 중국을 일주한 다음 마지막으로 시닝에서 칭짱열차를 타고 라싸로 이동했다. 라싸에서 주요 사원들과 시가지를 돌아본 다음, 지프를 이용해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갔다. 해발 3,000~5,000m 고지대를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때로는 고산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해가 지고 난 후 고원에 몰아치는 추위에 몸서리를 치기도 했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라싸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정치 및 종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거주하던 포탈라궁을 비롯해 유서 깊은 유적들이 많다. 조강사원은 티베트 왕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왕 송첸캄포에게 시집 온 당 태종의 딸 문성공주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로, 티베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절이다. 매일 오후가 되면 마당에서 문답식 교리수업을 진행하는 세라사원, 달라이 라마의 별장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노블링카 사원, 과거 승려 양성기관이었던 드레펑 사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큰 즐거움과 신선함을 주는 것은 없다. 조강사원은 오체투지를 하거나, '옴마니반메훔' 주문을 외고 마니통을 돌리며 사원을 도는 사람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포탈라궁도 가족 또는 마을 단위로 순례를 온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고원에 내리찍는 햇살로 얼굴은 검붉게 탔고, 옷은 오체투지로 흠뻑이 젖어 있지만 이들의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 보였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려 도착한 성지(聖地)에서 두 손을 모으고 머리와 가슴과 두 팔과 다리를 땅에 대며 기원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다. 이들을 보면서, 여행자들은 온갖 세파와 욕망, 집착에 사로잡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히말라야를 넘는 세계 최고의 험로

라싸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가는 이른바 '우정의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길이다. 해발 5,000m 전후의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라싸에서 해발 4,500m에 자리 잡은 암드록초 호수,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 그리고 간체 등 작은 마을들을 지났다. 대지는 메마르고 건조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풍경이 이어졌다. 승합차에서 내려 조금이라도 걷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혔다. 약한 고산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멀리 해발 7,000~8,000m의 히말라야 영봉들이 버티고 있고, 티베트 경전을 적은 노랑과 파란 천들이 고원을 지나온 바람에 날부졌다.

티베트 고원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르는 길은 마치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다. 이곳이 바로 '세계의 지붕' 아닌가. 하지만 세상의 끝은 없었다. 히말라야를 넘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산맥을 가로지르는 통라 고개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자 히말라야의 설산이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이 깊은 협곡 아래로 우렁차게 흘러내렸고, 양 옆으로 짙은 녹음이 펼쳐졌다. 기후가 한대에서 온대로, 다시 아열대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단 몇 시간 만에 극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 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티베트와 히말라야 여행은 무어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과 강한 여운을 남겼다.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태초의 모습을 닮은 원시적이면서 웅장한 자연을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에 비해 왜소한 인간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온갖 세상사가 작고 가벼워지면서 거기에 억눌려 있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티베트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로 넘어가는 여정은 우리 가족의 세계일주 여정 가운데 신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여정이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여정이었다.



경전을 적은 천들이 고원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티베트 고원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마지막 고개